



KIA 영 트리오 '두둑한 연말'



(이용규)



(윤석민)



(한기주)

연봉 대박에...구단 상까지...“오! 해피”

'땀 흘린 밭에 풍년 든다'란 속담이 있다. KIA의 '영 트리오' 이용규(21·외야수)와 윤석민(20), 한기주(19·이상 투수)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고졸 3년차인 이용규는 데뷔 이후 최고의 한해를 맞았다. 시즌 초 '볼타자'를 꾀한 그는 4할대의 고타율을 자랑하더니 이후 7개구단 투수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3할대 중반을 날라다녔다. 2006 도하 아시아 게임 국가 대표에 뽑혔고, 외야수 부문에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골든글러브까지 손에 넣었다. 이용규는 2006시즌 타율 0.318(3위), 154안타(1위), 38도루(3위), 78득점(2위)으로 타격 주요 부문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KIA는 2007년도 연봉협상에서 5천500만원이 오른 100%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용규는 단숨에 역대 연봉을

- 이용규 1억1천만원...우수타자상
윤석민 100% 인상...최우수선수
한기주 150% 꺾춤...우수투수상

돌파, 1억1천만원의 대박을 터트렸다. 윤석민 역시 인상값은 활약으로 팀의 4강행을 이끈 일등공신. 그는 올해 장문석의 바통을 받아 소방수로 변신했고, 5승6패 19세이브 평균자책점 2.28의 기록을 남겼다. 연봉 인상은 100%로 9천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150% 인상률에 이어 2년 연속 초고속 상승액이다. '10억 신인' 한기주도 이례에 비해 다소 초라하지만 높은 연봉 인상률로 그나마 자존심을 지켰다. 무려 150%나 증가된 5천만원의 연봉에 재계약을 맺었다. 시즌 초반 다소 부진했던 한기주는 8월부터 선발 보직을 버리고 특급 마들맨으로 변신, 팀의 4강행을 이끈 선봉장 역할을 해냈다. 오는 21일 구단 남회식에서도 각종 수훈상들이 이들 3인방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민은 구단이 자체 선정한 최우수선수상, 이용규는 우수타자상, 한기주는 우수투수상을 받는다. 1살 차이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20대 초반의 싱싱한 젊음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영 트리오'다. 이들이 있기에 KIA의 내년 시즌이 더욱 밝아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日 자율훈련단 귀국

프로야구 KIA의 일본 미야자키 자율훈련 선수단이 19일 오후 2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자율훈련 선수단은 총 38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3일부터 27일간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맹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투수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제구력과 투구 밸런스를 연마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선수단은 20일 하루 동안 휴식을 갖고 21일 구단 남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우즈 '올해의 선수'

미국 골프기자협회 선정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 골프기자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에 뽑혔다. 올해 브리티시오픈과 PGA 챔피언십 등 2개 메이저대회를 포함해 PGA 투어에서 8승을 거둔 우즈는 GWAA 투표 결과 97%의 지지를 얻었다. PGA 투어 선수들의 투표로 뽑은 올해의 선수에도 선정됐던 우즈는 1997년 투어에 입문한 뒤 1998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이 상을 받아 8번째 수상을 기록하게 됐다. 최우수 여자 선수 상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받았다. 오초아는 올해 6번의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과 상금왕, 평균 최소타를 친 선수에게 주는 베이 트로피 등을 휩쓸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허리채기 한판 1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대학생 유도선수권대회 남자 미니어스 66kg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 방귀만(한 도복)이 스페인 우리아르테에게 통쾌한 허리채기 한판승으로 동메달을 따내고 있다. /연합뉴스

꿈의 무대 '마스터스'

최경주·양용은 초청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골프 선수들에게 배달되는 '꿈의 무대' 마스터스 초청장이 올해는 한국 선수 2명에게 전달될 전망이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은 19일(한국시간) 세계골프랭킹에 따라 내년 마스터스 출전 선수 가운데 50명이 정해졌다고 보도했다. 마스터스는 전년도 연말 세계랭킹 50위 이내 선수에게 출전권을 부여한 뒤 대회가 열리기 직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삼급랭킹과 세계랭킹을 따져 나머지 출전 선수를 확정한다. 일찌감치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 50명 가운데 최경주(36·나이키골프)와 양용은(34·게이지디자인)이 당당히 자리를 잡았다. 연말 세계랭킹 29위에 오른 최경주는 벌써 5번째 마스터스 무대를 밟는다. 유럽프로골프 HSBC 챔피언십에서 타이거 우즈(미국)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 세계를 놀라게 했던 양용은은 이번이 첫 출전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세계랭킹은 우즈가 부동의 1위를 지킨 가운데 지난 18일 남아공오픈에서 우승한 어니 엘스(남아공)가 지난주 8위에서 5위로 뛰어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승 아직도 믿기지않아요”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금' '피겨여왕' 김연아 귀국

“동계아시아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해 '피겨여왕'에 오른 김연아(16·군포 수리고)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흰색 점퍼에 청바지를 차림으로 쏟아지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입국장을 나선 김연아는 기자회견에서 “출국 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출전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성적이 나와 아직까지 잘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연아는 이어 “허리 통증이 심해 음악에 동작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걱정스러웠는데 진통제를 먹고 치료를 계속해 겨우 경기를 치렀다”며 “아사다 마오와는 이번 시즌에 처음 만났는데 우승하고 나니까 미안한 생각도 든다”



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내년 동계아시아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입국한 박분선 코치는 “동계아시아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많은 새로운 점프동작보다는 김연아의 장점을 살리는 데 중점을 계획”이라며 “실수없는 연기를 위한 체력 보강에도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세금 부담 덜어줘야”

“현 세율 유지면 부도 속출” 한국 골프발전전략 세미나

한국 골프 발전을 위해서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골프협회가 1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개최한 '미래 한국골프 전략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골프장 관련 세계 개선의 중요성을 잇따라 거론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내년부터는 골프장 공급이 확대되는데도 공시지가 및 과표 현실화 등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해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 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특히 골프장의 증가세율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2008년 이후 지방 골프장 중 적자 또는 도산업체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소장은 또 “현행 세율이 유지되면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05년 22.0%

흑자에서 2010년 12.95%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 골프장 이용객 수는 1천780만 명에 달했으나 골프장 이용료가 높아 대중화에 큰 걸림돌”이라며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폐지하면 입장료가 적어도 3만원은 인하되고 해외 원정 골프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소장은 ▲골프산업 육성 차원에서 특조세 폐지 ▲체육시설 중 유일하게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만 부과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 폐지 ▲공시지가 상향 조정 완화 및 재산세·취득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영회계법원 이기열 회계사도 “1976년 골프장 입장료와 함께 처음으로 부과됐던 특별소비세가 30년이 지나도록 유지되고 있다”면서 “1998년 스키장과 증기탕에 대해서는 폐지됐는데도 골프장은 오히려 인상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조·중식 서비스



1월부터 2월말까지

○4개월 양간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는 오는 2007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주중에 비회원 4명이 내장할 때와 정회원 1인이 비회원 3인을 동반 시 4명 전원에게 조식과 중식 2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웍스드라이버 할인 판매

또한 함평다이내스티CC는 주말 내장하는 회원과 회원을 동반한 비회원 가족에게 합령 인근 관광지 방문 이벤트를 실시한다. 코스는 함평자연학습장생태관과 나주 주동촬영장, 목포 자연사박물관, 해양유물박물관, 남농기념관 등이며 버스 및 입장료는 골프장에서 부담한다. 이외에 동반가족은 레스토랑과 사우나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061-320-7700.

‘내 생애 최고의 홀’ 선정

○골드레이크CC LAKE 8(파4·465야드), 9번홀(파5·589야드)이 SBS골

프렌에서 KPGA·LPGA투어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인 선수들이 꼽은 ‘국내 톱프로, 내 생애 최고의 홀’에 선정됐다. 이번 홀 선정은 전국 14개 골프장 18개 홀이 선정됐는데 8번홀은 긴 오르막 홀로 2인이 어려워 가파른 포대그린으로 섬세한 실력이 요구된다. 9번홀은 티잉 그라운드 전방에 깊고 긴 계곡이 있고 왼쪽으로 휘어진 도그락형 파5홀이며 가파른 2단 그린도 공략에 재미를 부여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